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51호 [루계 제25029호] 주제 104 (2015)년 9월 8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꾸바공화국 국가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9월 7일 우리 나라
를 방문하고 있는
꾸바공산당 중앙
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꾸바공
화국 국가리사회
제1부위원장이며
내각제1부수상인
미겔 마리오 디아
스 까넬 베르무데
스 동지를 단장으
로 하는 꾸바공화
국 국가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정치국 위원
이며 당중앙위원
회 비서인 김양건
동지가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꾸바공화국 국가대표단 성원들과
상봉하시고 따뜻한 담화를 나누
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과 꾸바사이의 외교관계설정
55돐을 맞는 시기에 진행되고
있는 꾸바공화국 국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
하시고 존경하는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와 라울 까스뜨로 루쓰
동지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
줄것을 부탁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친근한 벗이고 동
지이며 혁명전우인 피델 까스뜨
로 루쓰동지와 라울 까스뜨로
루쓰동지가 조선로동당 창건 일
흔들을 한달 앞둔 시기에 꾸바
공화국 국가대표단을 우리 나라
에 보내준것은 사회주의 강성국
가진설을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
게 커다란 고무로 된다고 말씀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꾸
바공화국 국가대표단의 우리 나
라 방문은 새 세대들에게 조선과

꾸바사이의 친선의 역사와 전통
을 깊이 새겨주고 두 나라사이의
형제적인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
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조선과 꾸
바친선의 불폐의 생활력이 쌍방
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앞으로
더욱 힘있게 파시되리라는 확신
을 표명하시였다.

석상에서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는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와 라울
까스뜨로 루쓰동지의 따뜻한
인사를 전하여드리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성국가진설투쟁을 전두에서
지휘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
에서도 대표단을 접견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와 라울 까스뜨로 루쓰
동지와 함께 마련하여 주신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는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와
라울 까스뜨로 루
쓰동지의 각별한
관심속에서 공고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꾸바당파
정부는 조선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사회주
의 강성국가진설을
위한 투쟁에서 커
다란 성과를 이룩
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꾸바와
조선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지만
공동의 사상과 친
선의 정으로 굳게
단결되어있으며 두
나라 인민은 반제
자주의 전초선에
함께 서있는 전우
들이라고 하면서
꾸바와 조선친선협

조관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
는 것은 꾸바당파 정부의 확고부
동한 방침이라고 말하였다.

담화는 시종 친선적이며 화기애
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
동지는 성의껏 마련한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시하시고 꾸바공
화국 국가대표단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의 존엄과 영광 온 누리에 떨쳐주시는 위대한 령도

참으로 가슴벅찬 나날이 이 땅에 정연히 흘러갔다.

솟는 힘 노도와 같이 내밀어 인민의 품으로 선 나라, 한없이 부강번영하는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랑한 6·7년의 력사!

진리로 풍처진 양선 힘으로 빛나는 손비 만을 아로새기며 세 기의 상장봉으로 출발 음은 공화국의 6·7년은 우리에게 참으로 고귀한 철리를 세어 주고 있다.

모진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류례없는 기적들을 창조해온 승리의 나날에 대한 긍지와 자부도 비합마 없이 크다.

하지만 공화국창건 6·7년을 맞아 하는 이 시작 력사적인 나날의 체험자들만이 아닌 이 나라 새 세대들의 가슴마다에 끌없이 차넘치는 승하고 사상감정이 있다.

바로 그것은 내 조국은 영원한 태양의 나라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이라는 크나큰 궁지와 영광이다.

빛나는 승리로 이어세겨진 조국의 어제와 오늘을 생각할수록, 암동하는 걸음으로 세계우에 우뚝 솟구쳐오를 휘황찬란한 미래를 내다볼수록 우리는 이 부름을 심장으로 터치며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 헌 꿈없는 영광을 온 세상에 더욱 소리높이 자랑한다.

경에 하는 김정일조선은 나름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이시며 뼈우산대국의 영원한 영성이시고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십니다.』

김일성, 김정일조선!

한없이 고귀한 그 부름, 가슴에 새겨볼수록 솟구치는 걱정을 금할수가 없다.

장구한 인류역사의 그 어느 때에도 이별듯 절세의 위인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나라가 기록된 적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과 암살책으로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 조국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태양의 존함으로 더욱 빛을 뿐이며 경대하고 존엄높은 사회주의 강성국가로 세계우에 솟아오르고 있는 자랑찬 현실은 정녕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인민공화국

역사의 기적이라고밖에 달리는 말할 수 없다.

사람들이여, 숭엄한 마음으로 삼가 들이켜보시라.

파연 어떻게 되어 력사에 전후무한 모진 시련과 난관이 가로막아나섰던 이 땅에서는 좌절과 불피가 아니라 오히려 세계가 부여워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이란 장엄한 현실이 펼쳐질수 있었던가.

우리 인민은 파연 무엇으로 더욱 강의한 인민으로 될수 있었으며 무엇으로 우리 조국은 단 한번의 실패나 탐보도 없이 승리의 한걸만을 얻세게 걸어나갈수 있는가.

주체 101(2012)년 4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장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이 오늘도 이 나라 천민의 심장을 쿵쿵 울려준다.

승리와 영광만을 펼쳐가는 우리 혁명대원의 전진에는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의 기가 휘날릴것이며 언제나 우리를 새로운 승리에로 고무주동할것이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이 력사적인 선언을 통하여 우리 인민만이 아닌 세계인민들은 나라와 민족의 부강과 번영은 바로 당국과의 최고위에 탁월한 수령을 높이 모실 때만이 확고히 담보된다는 것을 짐작길이 새기였다.

우리 인민은 수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이시며 뼈우산대국의 영원한 영성이시고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조선!

한없이 고귀한 그 부름, 가슴에 새겨볼수록 솟구치는 걱정을 금할수가 없다.

장구한 인류역사의 그 어느 때에도 이별듯 절세의 위인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나라가 기록된 적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과 암살책으로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 조국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태양의 존함으로 더욱 빛을 뿐이며 경대하고 존엄높은 사회주의 강성국가로 세계우에 솟아오르고 있는 자랑찬 현실은 정녕

실현하시기 위해 우리 원수님께서 꽃 없이 이어가신 현지지도의 길은 그 열마이지 지새우신 밤은 또 염마이던가.

김일성동지의 후손들, 김정일동지의 전자, 제자들 모두가 언제나 수령님과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살며 투쟁하고 품금수산대양궁전을 이 세상 가장 훌륭한 성지로 꾸리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경에 하는 온 세계를 놀래우며 날 바다를 헤아른 그 가슴저린 목선의 발동소리만 깃들지 않았다.

최결방침조소로 가시는 그이를 일군들이 막아나서 때 아무리 무도가 위험하고 바다길이 사나와도 무조건 가겠다고, 동부들이 정 막아나서면 자신께서는 애율을 허락되도록 무도에 기어이 갈것이라고, 무도에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병사들이 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말씀이 희성 마냥 훌륭한 원수님,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들의 빛나는 역사가 영원히 흐르도록 하시는 경에 하는 원수님의 철석같은

의지에 떠 받들리 이 땅에는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지팡한 승리가 끝없이 펼쳐지고 있다.

수령님께서 미련해 주신 선군의 위력이 천 배 배로 다져져 그 어떤 대적도 일각에 것부서버릴수 있는 군사강국으로 더욱 전변되는 나라, 일심단결이 철통같이 다져지고 천민군민이 불굴의 정신력의 최강자들로 억세게 자라고 있는 궁지높은 현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미련해 주신 선군의 한길로 이 조선을 이끄실 철석의 의지를 안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헤쳐가신 선군혁명의 강행군길은 백두산혁명 강군의 최전성기가 얼마나 크나큰 혁신과 불편을 헤쳐나온 것인지,

수령님께서 걸으셨던 김정일동지에게는 철석같은

의지에 떠 받들리 이 땅에는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철석같은

의지에 떠 받들리 이

과학기술로 농업생산을 힘있게 추동해 나가자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학연구사업을 개선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연구과제를 중점적으로 설정하고 필요한 과학력량의 협동연구를 학제적으로 조직하여 최단 시일안에 수행하는 것입니다.』

최근년간 원산농업 종합

농업생산에 기여하는 알찬 열매를 원산농업종합대학에서

경에 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한 사람 같이 떨쳐나온 천실적의기관 연구과제들을 이룩하고 있다.

대학의 책임임원들은 현시기 농업생산에서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들을 연구종사로 잡고 최단시간안에 완성하기 위한 조직정직사업을 적극 주고는 한편 현실에 자주나가 교원, 연구사를 함께 연구사업을 앞당겨 끌어내기 위한 방도들을 모색하고 필요한 조건들도 제때에 보장해주고 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더욱 분발하여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한편 차량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

교원 리영준동무는 복

경에 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한 사람 같이 떨쳐나온 천실적의기관 연구과제들을 이룩하고 있다.

대학의 책임임원들은 현

시기 농업생산에서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들을 연구종사로 잡고 최단시간안에 완성하기 위한 조직정직사업을 적극 주고는 한편 현실에 자주나가 교원, 연구사를 함께 연구사업을 앞당겨 끌어내기 위한 방도들을 모색하고 필요한 조건들도 제때에 보장해주고 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더욱 분발하여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한편 차량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

교원 리영준동무는 복

경에 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한 사람

같이 떨쳐나온 천실적의

기관 연구과제들을 이룩하고 있다.

대학의 책임임원들은 현

시기 농업생산에서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들을 연구종사로

잡고 최단시간안에 완성

하기 위한 조직정직사업을

적극 주고는 한편 현실에

자주나가 교원, 연구사를

함께 연구사업을 앞당겨

끌어내기 위한 방도들을

모색하고 필요한 조건도

제때에 보장해주고 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더욱 분발

하여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한편 차량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

교원 리영준동무는 복

경에 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한 사람

같이 떨쳐나온 천실적의

기관 연구과제들을 이룩하고 있다.

대학의 책임임원들은 현

시기 농업생산에서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들을 연구종사로

잡고 최단시간안에 완성

하기 위한 조직정직사업을

적극 주고는 한편 현실에

자주나가 교원, 연구사를

함께 연구사업을 앞당겨

끌어내기 위한 방도들을

모색하고 필요한 조건도

제때에 보장해주고 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더욱 분발

하여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한편 차량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

교원 리영준동무는 복

경에 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한 사람

같이 떨쳐나온 천실적의

기관 연구과제들을 이룩하고 있다.

대학의 책임임원들은 현

시기 농업생산에서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들을 연구종사로

잡고 최단시간안에 완성

하기 위한 조직정직사업을

적극 주고는 한편 현실에

자주나가 교원, 연구사를

함께 연구사업을 앞당겨

끌어내기 위한 방도들을

모색하고 필요한 조건도

제때에 보장해주고 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더욱 분발

하여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한편 차량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

교원 리영준동무는 복

경에 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한 사람

같이 떨쳐나온 천실적의

기관 연구과제들을 이룩하고 있다.

대학의 책임임원들은 현

시기 농업생산에서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들을 연구종사로

잡고 최단시간안에 완성

하기 위한 조직정직사업을

적극 주고는 한편 현실에

자주나가 교원, 연구사를

함께 연구사업을 앞당겨

끌어내기 위한 방도들을

모색하고 필요한 조건도

제때에 보장해주고 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더욱 분발

하여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한편 차량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

교원 리영준동무는 복

경에 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한 사람

같이 떨쳐나온 천실적의

기관 연구과제들을 이룩하고 있다.

대학의 책임임원들은 현

시기 농업생산에서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들을 연구종사로

잡고 최단시간안에 완성

하기 위한 조직정직사업을

적극 주고는 한편 현실에

자주나가 교원, 연구사를

함께 연구사업을 앞당겨

끌어내기 위한 방도들을

모색하고 필요한 조건도

제때에 보장해주고 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더욱 분발

하여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한편 차량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

교원 리영준동무는 복

경에 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한 사람

같이 떨쳐나온 천실적의

기관 연구과제들을 이룩하고 있다.

대학의 책임임원들은 현

시기 농업생산에서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들을 연구종사로

잡고 최단시간안에 완성

하기 위한 조직정직사업을

적극 주고는 한편 현실에

자주나가 교원, 연구사를

함께 연구사업을 앞당겨

끌어내기 위한 방도들을

모색하고 필요한 조건도

제때에 보장해주고 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더욱 분발

하여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한편 차량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

교원 리영준동무는 복

경에 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한 사람

같이 떨쳐나온 천실적의

기관 연구과제들을 이룩하고 있다.

대학의 책임임원들은 현

시기 농업생산에서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들을 연구종사로

잡고 최단시간안에 완성

하기 위한 조직정직사업을

적극 주고는 한편 현실에

자주나가 교원, 연구사를

함께 연구사업을 앞당겨

끌어내기 위한 방도들을

모색하고 필요한 조건도

제때에 보장해주고 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더욱 분발

하여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한편 차량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70년 죄악을 폭로한다

남조선인권대책협회 조사통보

미제침략군이 1945년 9월 8일 남조선에 군화발을 들어놓은 때로부터 70년이 되었다.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사는 일제의 구식민지통치사에 이은 미국의 신식민지지배역사이며 우리 민족에게 해아될수 없는 불행과 고통, 참화만을 들씌워온 가장 악랄하고 잔인한 범죄의 역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마치 저들이 남조선의 그 무슨 「진실한 우방

국」, 『굳건한 동맹자』, 『인권의 수호자』나 되는듯이 미화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제이루어 갖은 요성을 펴워대도 땅에 남긴 미제침략군의 극악한 범죄의 역사, 피의 혐은 영원히 지울수도, 가리울수도 없다.

남조선인권대책협회는 미제침략군이 장장 70년동안 남조선에서 강행한 천주에 용납 못할 반인륜적, 반인권적범죄를 만천하에 폭로하기 위하여 이 조사통보를 발표한다.

정치적자유와 권리에 대한 극악한 말살범죄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어 그 누구의 구속이나 예속을 받음이 없이 정치적자유와 권리로 행사하며 살려는 것은 자주적인간의 본성적요구이며 그것을 유린하는것은 가장 악랄한 인권말살범죄로 된다.

『해방자』, 『보호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에 이어진 미제침략군은 일제의 식민지통치체계를 그대로 연장한 파쑈적인 군정통치로 남조선인민들의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깡그리 말살하였다.

전쟁에 관한 국제법규들에는 군정의 실시를 피침령국이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한탓으로 하여 점령국으로부터 자주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제한받아야 할 경우와 전후 피침령국에 조성된 무질서를 바로잡고 그 나라 사람들이 자치 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주어야 할 경우에만 허용하고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한적이 없으며 더우기 8. 15 해방후 남조선의 전지역에 수립된 각급 인민위원회들은 일본군대와 경찰의 무장을 해제하고 자치를 실시하여 사회의 안정을 보장하고있었으므로 미제침략군이 강점하여 군정을 실시할 그 어떤 구실도, 명분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침략군은 공인된 국제법들을 런복하게 위반하고 비법적으로 남조선을 강점하였음을 뿐아니라 일제의 식민지통치체계를 그대로 되살려 파쑈적인 군정통치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일제식민지통치의 상징인 『조선총독부』를 군정청으로 고쳐부르고 기구체계를 거의나 원래대로 유지하였으며 1945년 12월 당시 3만 5 000여명에 달하는 일본인들을 그대로 두고 써먹은데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복무한 도지사, 군수, 면장도 그대로 두었으며 일제식민지법원을 특별법제판소로, 일제시기의 『조선총독부』종주원을 군정장관과군회로 간판만 바꾸어놓은데서 잘 알수 있다.

미군정은 조작된 첫날부터 주인행세를 하면서 남조선인민들에게 무조전적인 복종만을 강요하였다.

그것은 1945년 10월 초대 미군정장관 이돌드가 『북위 38° 선 이남의 조선에는 오직 하나의 정부만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정부는 맥아더장군의 표고령과 하지종장의 일반령, 군정의 민정장관이 발행하는 명령에 따라 수립된다. …그것은 정치의 모든 면에서 지배와 훈련을 독점하고 있다.』고 폭언한데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당시 미국 종군기자였던 마크 게인은 자기의 수기에서 『우리들은 해방군이 아니었다. 우리들은 점령하기 위해, 조선사람이 항복조건에 복종하는 는가를 감지하기 위해 탈려 간 것이다. 우리들은 상륙 첫날부터 조선인민의 적으로 행동하였다.』고 폭로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말살하기 위한 미군정의 범죄적행은 미제침략군에 의한 학살만행은 미군정에 의한 일민위원회파괴실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사실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침략군은 남원군민위원회가 일본인, 칠원분자들의 재산을 몰수, 판매한 것을 『불법행위』라고 하면서 일민위원회의 해산을 공포하고 위원들을

미제침략군은 전후에도 저들의 식민지지배체계유지를 위해 남조선인민들의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통괄로 관리발달하였다.

1960년 4. 19인민봉기와 1980년 5. 18광주인민봉기 등 자주, 민주,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인민들의 의료운 투쟁을 야수적으로 진압하도록 군사파쑈당을 현지에서 군사적으로 위반침해준 진민인이 미제침략군이라는것은 세상이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미제침략군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남조선이라는 『맛좋은 비게덩어리』였지 정치적자유와 권리로 꽁그리 달달한 침략군, 강점군이며 극악한 인권유린범죄집단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제반 사실은 미제침략군은 남조선

인민들의

이것은 남조선강점 미군사병관 워킹이 광주인민봉기를 야수적으로 진압한 이후인 1980년 8월 8일 『로스안젤레스 타임즈』지와의 기자회견에서 『《한국》민의 국민성은 틀리와 같으며 누가 지도자가 되면 그 지도자를 따라갈것이다. 『한국』에는 민주주의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폭언을 마구 훼친 사실만 보아도 알수 있다.

미제침략군은 1976년 일본 가나와현에 주둔해있는 미록군세균기연구소 406부대소속 미생물연구소 분

전대를 남조선에 끌어들여 고려대학

교와 경희대학교 등에 세균연구소들

을 설치해놓고 남조선인민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사률이 높은 악성

전염병인 유행성출혈열세균무기설

험을 하면서 그 살상효과를 검증하였다.

제반 사실은 미제침략군은 남조선

인민들의 『해방자』, 『보호자』가 아니

라 그들의 정치적자유와 권리로 꽁그리 달달한 침략군, 강점군이며 극

악한 인권유린범죄집단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제반 사실은 미제침략군은 남조선

인민들의 『해방자』, 『보호자』가 아니

라 그들의 정치적자유와 권리로 꽁그리 달달한 침략군, 강점군이며 극

악한 인권유린범죄집단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제반 사실은 미제침략군은 남조선

인민들의 『해방자』, 『보호자』가 아니

라 그들의 정치적자유와 권리로 꽁그리 달달한 침략군, 강점군이며 극

악한 인권유린범죄집단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제반 사실은 미제침략군은 남조선

인민들의 『해방자』, 『보호자』가 아니

라 그들의 정치적자유와 권리로 꽁그리 달달한 침략군, 강점군이며 극

악한 인권유린범죄집단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제반 사실은 미제침략군은 남조선

인민들의 『해방자』, 『보호자』가 아니

라 그들의 정치적자유와 권리로 꽁그리 달달한 침략군, 강점군이며 극

악한 인권유린범죄집단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제반 사실은 미제침략군은 남조선

인민들의 『해방자』, 『보호자』가 아니

라 그들의 정치적자유와 권리로 꽁그리 달달한 침략군, 강점군이며 극

악한 인권유린범죄집단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제반 사실은 미제침략군은 남조선

인민들의 『해방자』, 『보호자』가 아니

라 그들의 정치적자유와 권리로 꽁그리 달달한 침략군, 강점군이며 극

악한 인권유린범죄집단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제반 사실은 미제침략군은 남조선

인민들의 『해방자』, 『보호자』가 아니

라 그들의 정치적자유와 권리로 꽁그리 달달한 침략군, 강점군이며 극

악한 인권유린범죄집단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제반 사실은 미제침략군은 남조선

인민들의 『해방자』, 『보호자』가 아니

라 그들의 정치적자유와 권리로 꽁그리 달달한 침략군, 강점군이며 극

악한 인권유린범죄집단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제반 사실은 미제침략군은 남조선

인민들의 『해방자』, 『보호자』가 아니

라 그들의 정치적자유와 권리로 꽁그리 달달한 침략군, 강점군이며 극

악한 인권유린범죄집단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제반 사실은 미제침략군은 남조선

인민들의 『해방자』, 『보호자』가 아니

라 그들의 정치적자유와 권리로 꽁그리 달달한 침략군, 강점군이며 극

악한 인권유린범죄집단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제반 사실은 미제침략군은 남조선

인민들의 『해방자』, 『보호자』가 아니

라 그들의 정치적자유와 권리로 꽁그리 달달한 침략군, 강점군이며 극

악한 인권유린범죄집단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제반 사실은 미제침략군은 남조선

인민들의 『해방자』, 『보호자』가 아니

라 그들의 정치적자유와 권리로 꽁그리 달달한 침략군, 강점군이며 극

악한 인권유린범죄집단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제반 사실은 미제침략군은 남조선

인민들의 『해방자』, 『보호자』가 아니

라 그들의 정치적자유와 권리로 꽁그리 달달한 침략군, 강점군이며 극

악한 인권유린범죄집단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제반 사실은 미제침략군은 남조선

인민들의 『해방자』, 『보호자』가 아니

라 그들의 정치적자유와 권리로 꽁그리 달달한 침략군, 강점군이며 극

악한 인권유린범죄집단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제반 사실은 미제침략군은 남조선

인민들의 『해방자』, 『보호자』가 아니

라 그들의 정치적자유와 권리로 꽁그리 달달한 침략군, 강점군이며 극

악한 인권유린범죄집단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제반 사실은 미제침략군은 남조선

인민들의 『해방자』, 『보호자』가 아니

라 그들의 정치적자유와 권리로 꽁그리 달달한 침략군, 강점군이며 극

악한 인권유린범죄집단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제반 사실은 미제침략군은 남조선

인민들의 『해방자』, 『보호자』가 아니

라 그들의 정치적자유와 권리로 꽁그리 달달한 침략군, 강점군이며 극

악한 인권유린범죄집단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제반 사실은 미제침략군은 남조선

인민들의 『해방자』, 『보호자』가 아니

라 그들의 정치적자유와 권리로 꽁그리 달달한 침략군, 강점군이며 극

악한 인권유린범죄집단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제반 사실은 미제침략군은 남조선

인민들의 『해방자』, 『보호자』가 아니

라 그들의 정치적자유와 권리로 꽁그리 달달한 침략군, 강점군이며 극

악한 인권유린범죄집단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제반 사실은 미제침략군은 남조선

인민들의 『해방자』, 『보호자』가 아니

라 그들의 정치적자유와 권리로 꽁그리 달달한 침략군, 강점군이며 극

악한 인권유린범죄집단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제반 사실은 미제침략군은 남조선

인민들의 『해방